

# “특수도서관” 사라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육근해\*

“**특수**도서관”이란 어휘는 처음에는 전문도서관을 의미하였으나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서 독립적으로 정의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수도서관이란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식정보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IFLA에서는 지식정보소외계층을 어떤 이유에서든 기존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병원의 환자, 교도소의 수형자, 난독증(Dyslexia)자를 포함한 독서장애인, 노약자,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도서관은 여태껏 모든 사람들과 정부, 도서관계, 그리고 문헌정보학계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설립된 특수도서관의 수도 많지 않고, 특수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역시 거의 없었으며, 연구 및 발표된 논문도 별로 많지 않았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들 역시 특수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 없이 특수도서관에 취업하여 다른 일반도서관과의 차별화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00년 처음으로 특수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에는 도서관대회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도서관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도서관기준 역시 2003년판 한국도서관 기준에서 최초로 특수도서관 기준이 정립되었다. 특수도서관 기준은 이미 1981년 도서관 기준에 정의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도서관 기준에 있었던 특수도서관 기준은 전문도서관 유형을 정립한 것으로 완벽한 기준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에 병원도서관을 비롯한 본질적인 특수도서관의 기준은 2003년판에 처음으로 정립된 것이다.

국내의 특수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교도소도서관은 설치되어 있는 교도소가 부족하고, 자료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복역하는 많은 재소자들이 인권위원회 자료실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병영도서관의 경우 2001년 사랑의책나눔기운동본부에서 ‘진중도서관(병영도서관) 건립

\* 한국도서관협회 특수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 youk@kbl.or.kr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군부대에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지난해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병영도서관'을 특수도서관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별도로 규정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나 시설 및 서비스 면에서 만족 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설립한 점자도서관은 현재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문고보다 못한 곳이 많고, 도서관 간의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 특수 자료의 중복제작이 많다.

넷째,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서관은 대개 큰 병원에만 존재하며, 병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제도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특수도서관은 문헌정보학계 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 제도화하며, 지원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최근 지난 6월 공개된 도서관법개정 시안에서는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특수도서관"이란 명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 내용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함께 발전되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치 공공도서관 그들에 묻혀버린다면 여태껏 힘들게 추진해왔던 많은 발전 노력들이 하루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말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특수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적으로 문화관광부만이 아닌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문헌정보학계는 끊임없는 연구 환경과 사명감 있는 전문 사서들을 길러내어 특수도서관 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특수도서관위원회가 독립적이든 공공도서관위원회와 함께 하는 계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 증가하는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국립장애인서비스센터 설립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시켜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가 탄생하였고, 사회복지를 잘 수행해 나감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도서관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도소 도서관을 비롯한 특수도서관계의 도서관 발전에 힘쓰고 있다.

특수도서관을 얼마나 잘 발전시키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